

욕망의 좌절과 시기 감정: 1960년대 한국 엘리트의 감정 구조 - 손장순의 『한국인』을 중심으로 -

김 영 미

(경인여자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근대화의 기틀을 잡아가던 1960년대를 살아가는 엘리트의 감정구조를 손장순의 『한국인』을 통해 살펴보았다. 작가는 1960년대 초의 불안정하고 부조리하며 불운한 한국 사회가 일그러진 남성 엘리트들을 낳았다고 제시하고 있다. 60년대 대부분의 엘리트들이 그러했듯이 소설 속에 나오는 남성인물들은 모두 입신출세의 욕망, 사회적, 물질적으로 안정된 위치를 갈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속물적이다. 이들은 모두 동질적인 세계에서 동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 감정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우월함/열등함, 승리/패배의 이분법적 사고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이 인물들은 자신들의 열등함과 상대의 우월함에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일탈과 불법을 통해서라도 우월함의 위치를 고수하고자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감정의 실체를 모르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 상태는 시기의 감정에 다를 아니다. 이 시기감정은 그들의 삶을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점에서 파괴적이다. 시기감정 속에 있는 선망의 감정 역시 타자지향적인 사고, 타자에 대한 이상화와 자신의 내적인 결핍에서 기인하며 개인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하게 재현되어 있다. 소설 속에서 선망은 자기 향상보다 열등함과 내적인 결핍과 더 연관되어 있고, 자신과 타자의 극복할 수 없는 거리를 강조하고 있다. 시기와 선망의 부정적인 감정의 대척점에 희연이라는 인물이 있다. 외부의 시선, 외부의 욕망과 독립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내적, 정신적 가치, 자신의 고유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주인공, 희연을 통해 시기 감정의 극복의 길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주제어 : 1960년대, 엘리트, 손장순, 『한국인』, 시기감정, 선망, 입신출세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근대화의 주춧돌이 놓인 시기” (천정환·권보드래 8)라 할 수 있는 1960년대를 살아가는 한국 엘리트의 감성구조를 손장순의 대표작 『한국인』(『현대문학』 1966.1~1967.7)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1950년대, 60년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주목받는 작가, 손장순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연구되어 왔다. 첫 번째 경향은 여성의 삶, 여성의 주체성/정체성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손장순의 장편 여섯 권을 분석한 안서현은 손장순의 소설은 “여성의 실존적 모험에 대한 우리 시대 이야기의 원형을 제시하는 풍요로운 텍스트”(147)라고 말했으며, 이선미는 손장순의 소설이 “성과 사랑의 주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 개인의 근대화를 담론화했다”(444)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우영은 손장순의 여성인물들이 ‘외부자되기’의 방식을 통해 속물적인 사회에 저항하고 있음을 지적한다(69). 두 번째 경향은 60년대, 70년대적 맥락에서 손장순의 소설을 분석하는 경향이다. 방민호는 손장순의 소설들을 풍속소설의 맥락 속에 놓으면서 그 소설들이 60년대, 70년대 사회의 제반 문제를 깊이 있게 잘 조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60년대 혼종적인 한국 사회를 통찰력과 객관적 냉철함을 가지고 잘 묘사하고 있다고 본다(31). 세 번째 경향은 손장순의 남성인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손장순의 병적인 남성인물들은 60년대 초반의 “정치, 사회 경제의 기형성을 폭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김양선). 본 연구는 손장순의 『한국인』의 인물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시기 감정의 영향 속에 있다고 보며, 이것이 당대 사회의 문제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작품 뒤에 실린 작가의 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작가는 “한국인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분석 내지 자아반성의 필요”(336)에서 이 소설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했다. 1960년대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서를 출간한 천정환·권보드래에 의하면 “맹목적인 서구지향의 풍토 속에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는 절실한 자기반성”의 흐름이 이 시대 지성의 한 흐름이었다고 하는데, 손장순의 이 소설은 바로 이런 지성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당대에 한국 사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에까지 번역 출간된 이어령의 저서, 『흙 속에, 저 바람 속에』(1962)에 비견될 수 있다. 이어령의 이 수필집은 지금 시각으로 보면 매우 “허술한 한국인론, 한국문화론”이지만¹⁾ 서구문화지향 속에 상실되어 가던 한국인/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한국인/한국민족/한국문화의 어떤 본질적인 정체성이 영원불변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손장순 소설 속의 인물들이 한국인을 대변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오히려 손장순이 그리는 인물들은 특정 계급, 즉 엘리트와 상층계급의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그녀의 소설 속 인물과 사회의 모습이 한정적이지만, 그녀가 잘 아는 세계를 그리는 만큼 그 사회의 면면을 생생하고 예리하게 그리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구 유학 경험, 한국의 대학, 정치, 관료, 사업의 세계, 엘리트 남녀의 사랑과 결혼, 성의 문제를 사회 비판의식과 함께 솔직하게 펼쳐내는 그녀의 소설은 ‘세태소설’ 혹은 ‘풍속소설’²⁾이라 불릴 정도로 한 시대, 한 특정 집단의 삶의 풍속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은 전후의 혼란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번영과 민주주의를 확립 하려고 하던 1960년대 초의 시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4.19 직후 제2공화국이 들어선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5.16 군사 혁명이 일어나 제3공화국이 시작되어 한일협정이 맺어지는 시기까지 다루고 있다. 발자크 소설이 프랑스 혁명 이후 사회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승리와 성공을 향해 돌진 하던 청년들을 묘사하고 있듯이, 『한국인』도 4.19 혁명 이후에 새롭게 재편되는 한국 사회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야망과 환멸과 좌절

1) 천정환과 권보드래에 의하면 이 책의 발상과 방법론에 오리엔탈리즘의 혐의가 있다고 했다. 천정환·권보드래,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2. 296쪽.
 2) 방민호에 의하면 풍속소설은 “한 시대의 추이를 전반적으로 그리지만, 단지 사회 또는 시대의 외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꿰뚫는 진실을 드러내는 힘을 가진다”고 했다. 방민호, 「한국문학의 1960, 70년대와 손장순 문학의 의미」, 『아프리카와 손장순 문학』, 방민호 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35쪽.

을 다룬다. 발자크 소설이 지방에서 파리로 이동한다면, 손장순의 소설 주인공들은 미국에서 한국의 서울로, 혹은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한다. 서울이 욕망이 펼쳐지는 중심지인 것이다. 전해자에 의하면 손장순은 “서울이라는 도시성이 몸에 배어 있는 작가”(213)로서, 이 소설의 서울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1960년대 초기의 카오스적 의미를 대변하고 있다”(216)고 한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교육을 받고 돌아온 유학파 인재들 아니면 한국 명문대학을 졸업한 인재들로서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준비와 의지가 충만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손창섭 소설에 주로 나오는 잉여인간의 정반대편에 있는 인물들로서,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도 전폭적인 애정과 지원을 받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남성인물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여성인물들도 모두 대학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다. 여성인물 가운데는 희연이나 소라처럼 서울의 전통적인 중상층 출신의 인물도 있지만, 쭉 한처럼 첩 노릇하는 언니의 지원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여성도 있고 헤미처럼 지방출신이지만 서울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도 있다. 물론 이 여성들 모두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기보다 결혼을 자신들의 길로 선택하지만, 이 여성들은 근대교육을 받고 자아의식이 강한 엘리트 여성인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주목할 사실은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중 행복하고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하고, 결혼 생활에서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이혼하고, 심지어는 정신병원이나 감옥에 가거나, 자살이나 타살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살게 하는가?

일차적으로 이들의 불행한 삶은 당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제반문제와 관련 있다. 작가가 소리 높여 비판하듯이 이는 미국의 원조정책에 기대어 근근이 꾸려나가는 한국 경제의 열악한 상황, 민주적 가치와 공정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뤄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 유능한 인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의 부족,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의 존속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다. 어느 시대든 과도기가 아닌 적이 없고 살아내기 쉬운 시대는 없지만 이 소설이 그리는 1960년대 초의 한국 사회는 부정, 부패, 모순, 혼란, 궁핍의 사회, 불운의 사회였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사회의 이런 면면들이 이 소설 인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소설 속 인물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며, 이들의 삶의 태도, 내면 풍경, 감정구조는 무엇인가?

II. 60년대 초 한국 사회와 시기감정

어떤 시대를 특정 감정과 연결시켜 논의하는 것은 일반화의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의 연관 속에서 감정을 논의한 사례들도 꽤 있다. 후기 근대의 감정들을 연구한 응가이(Ngai, Sianne), 후기근대사회를 ‘피로’ ‘소진’의 감정으로 설명한 한병철, 1987년 이후의 체제를 진정성의 상실과 속물감정의 대두로 본 김홍중,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친 후 2000년대 한국인의 지배정서로 ‘공포’ 감정을 언급한 박형신·정수남의 작업들이 그 예들이다.

필자가 보기에 지금 우리 시대에 주목해야 할 감정 중 하나가 시기의 감정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시기의 감정이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구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버트런트 러셀이 지적하듯이 시기는 ‘민주주의’의 토대인 ‘평등의식’과 관계있다. 우리는 사회, 경제, 지위, 재능 등의 면에서 우리와 간극이 매우 큰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심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시기심을 느끼는 대상은 우리보다 약간 나은 사람,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다. “손에 닿을 듯한 그 미묘한 차이야말로 시기심이 무력 무력 자라는 토양”이다(나카노 노부코·사와다 마사토 57). 나카노 노부코와 사와다 마사토에 의하면, 일본 사회는 평등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타인과의 작은 차이도 문제 삼기 쉽고, 시기심을 느낄 기회도 많다고 하면서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일본인이 시기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음을 증명했다(64). 한국 사회도 일본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에 민감한 평등주의적 사고 경향이 강하다고 강준만은 지적한다. 둘째, 시기심은 세속적 소유물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

소유물이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물질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감정이다. 물질주의, 소비주의, 속물주의로 규정되는 현대의 삶에서 시기의 감정은 촉발되고 장려되는 감정이다. 수전 메트(Susan Matt)의 연구에서 미국이 물질주의 사회로 전개되는 시점에서 전통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겨지던 시기의 감정이 긍정적으로 장려되기도 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시기심은 물질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최근 경영학 관련 논문을 보면 소비자의 선택 심리를 분석하여 제품 구매 전략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주체와 시기감정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선택과 시기의 감정으로 초대받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시기심은 경쟁과 사회적 비교의식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다. 시기심은 언제나 남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자유주의체제와 신자유주의체제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다.

시기의 감정을 자신보다 뛰어난 상태에 있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거머쥔 사람에 대해 쓸쓸해하고 불쾌하게 느끼는 감정이다. 시기심은 상대가 가진 소유물이나 성취가,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만드는”(메스킬 재인용 44) 그런 감정이다. 우리가 시기를 느끼는 요소는 “돈과 재산처럼 물질에만 한정되지 않고 능력, 지위, 외모, 권력과 인맥, 학업과 업무 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망라한다(나카노 노부코·사와다 마사토 51). 시기 혹은 시샘은 드러나는 순간 그것을 느끼는 사람의 열등함과 상대의 우월감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러내기 꺼려하고 부끄러워하는 감정이다. 그런데 시기의 감정에는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의 경계에 위치”(차운아 184)하는 선택의 감정도 시기 감정 속에 있다. 부러움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이 선택의 감정은 수치스럽고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시기 감정과 달리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표현이 용납되는 감정이다. 부러움의 대상은 “시샘의 대상에 비해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대상이거나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느끼는 대상”(184)이다. 부러움은 대상의 우월감을 인정하고, 그 대상을 닮고 싶어 하는 모방 욕구를 촉발하며 자기 향상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러움은 “애정과 존경으로 무해처리한 선택”(애쉬윈 재인용 2), “무해한 선택”(차운아 173)이라 말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부러움 역시 부정적

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차운아는 지적한다(173). 부러움 역시 자존감을 손상하여 부정적인 자아상을 부각할 수 있고, 또 부러움에도 대상에 대한 적대감이 없지 않으므로 부러움이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1960년대는 “개인의 조형이 중요한 화두”(권보드래·천정환 471)로 등장한 시대였던 점, 입신출세가 구성원들의 주요 과제였던 점,³⁾ 한국의 후진성/미국의 선진성, 서울/지방 등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960년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우월/열등의 비교의식, 경쟁심, 선망과 시기의 감정에 노출될 여지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회적 위치가 비슷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동질적인 집단의 경우 그 구성원들은 시기 감정을 경험하기가 더 쉽다. 손장순의 『한국인』은 60년대 초 엘리트 집단의 남녀의 삶을 재현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삶에서 시기 감정의 작동을 살펴보기에 매우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그런데 손장순은 이 소설에서 시기의 감정을 자의식적으로 탐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시기 감정을 탐구하는 통상적인 플롯이 이 소설에는 없다. 보통 시기 감정의 탐구는 짝패를 이루는 두 인물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삶의 행로를 쫓아가는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반해, 손장순의 소설에서는 강렬하게 시기의 감정으로 얽혀 있는 짝패 인물이 없다. 말하자면 두 비슷한 인물이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가 가진 것, 상대가 이룬 것을 시기하여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식의 플롯은 없다. 그러나 소설 속 인물 대다수는 예리한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우월감의 이분법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며, 열등감이 유발하는 부러움의 감정, 결핍의 감정이 자아의 파멸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시기 감정의 프레임으로 이 소설

3) 물론 입신출세의 욕망이 60년대만의 특성은 아니다. “근대이래 한국 사회에서 근대 주체를 형성한 주된 동력은 입신출세 욕망”(298)이라고 말한 소영현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제국주주의에 의해 근대적 체제가 한국에 들어온 식민지 시대에도 입신출세의 욕망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이런 입신출세의 가능성이 식민지 시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개인에게 열려 있었던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성공의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소영현, 「전쟁 경험의 역사화, 한국 사회의 속물화」, 『한국학연구』 32권, 2009.

을 분석하면 인물들의 내적 동력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여성인물들에게서 더 많이 경험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이 소설에서는 남성인물들의 세계 역시 시기 감정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어 흥미롭다. 구체적으로 남성인물들이 시기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살펴보자.

Ⅲ. 남성 주체의 위치경쟁과 시기심

『한국인』은 엘리트 계층의 남녀관계를 날카로운 현실 인식 속에서 그 심리를 매우 짙진하게 묘사한다는 점에서 조한혜정이 『한국의 남성과 여성』(1988)에서 한 작업을 소설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듯하다. 60년대의 김승옥, 최인훈 등의 소설에서 여성인물들이 대상화되고 있는데 반해, 손장순의 이 소설은 여성인물의 현실과 그 내면을 매우 현실감 있게 잘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설에서 더욱 인상적인 것은 여성인물 못지 않게 남성인물에 대한 비중이 매우 크고, 그들이 속한 세계와 그 내면을 생생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남성인물들의 세계를 보면 그들은 모두 미국 유학파 출신이거나 혹은 국내 명문대학 출신으로 엘리트 집단에 속한다. 이들은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고민하고 그 대의를 위해 살기보다는 사회적, 물질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위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이고 속물적이다. 이들은 거의 동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가치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법은 없다. 이들이 주로 경쟁하는 것은 사회적 위치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서로를 구분하고 견제하면서 치열하게 위치경쟁을 벌인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분은 역시 유학파와 국내파의 구분이다.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인 문휘는 6.25 전쟁 때 참전한 후 미국의 원조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미국 유학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대학 학부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한 재원이다. 그는 하버드 대학 학부 졸업 후 석사 과정을 밟다가 도중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외무부로 들어갔다. 이후 능통한 영어실

력, 출중한 외모, 명문 외국대학 수학 이력으로 말미암아 4.19 혁명 이후 새로 들어선 제2공화국의 대통령 의전담당 비서관으로 발탁된다.

그의 이런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당대 미국 유학은 “성공과 출세의 보증수표”(김종영 58)였다. 미국 유학은 위치경쟁에서 이점을 담보해주고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수단이었다. 해방기 소설을 연구한 박용재는 해방기의 대표적 속물근성 중 하나가 ‘미국인 되기’였다고 말한 바 있고(186), 천정환·권보드래는 한국전쟁당시에서 1967년까지 도미유학 경력자가 “남한의 최고 지배엘리트와 친미파의 대종을 이루었고,” 이는 남한의 “학계, 군, 언론, 관료집단 등 모든 영역을 망라했다”(288)고 말한다. 해방, 전쟁, 분단을 겪은 뒤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60, 70년대)에서 한국 사회는 “개별자의 속물화”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속물화”(소영현 275)를 겪었는데, 속물사회에서 입신출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 미국유학이었던 셈이다.

문휘, 한선 등을 비롯한 미국유학생들은 모두 형편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사람이고, 어찌하든지 간에 입신출세하겠다는 집념이 강한 사람들로 재현되어 있다. 같이 도미유학을 했던 썬한의 말처럼, 이들은 “유학을 코에 걸고 보상을 툭툭히 받으려”(151) 하는 사람들인데, 이 보상은 바로 출세의 다른 표현이다. 이들은 본인 스스로의 좋은 직장을 통해서 뿐 아니라 권세와 부가 있는 집안의 딸이거나 혹은 의사와 약사 같은 좋은 직장을 가진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서도 출세와 안정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속물이다.

그런데 『한국인』에서 미국유학생출신의 엘리트들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무기를 가졌다는 우월감과 입신출세의 욕망을 안고 한국에 온 그들은 출세와 성공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인재소화불량증”(74)이라고 소설에서 언급되듯이, 한국의 상황이 미국 유학생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앉힐 만큼 충분한 직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나마 자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으로 만연한 권력형 비리 때문에 쉽게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한번 직장을 잃으면 그에 마땅한 직업을 구할 수가 없다. 둘째, 한국의 명문대학을 나오거나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족한 자리를 두고 국내파/유학파

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국내파들은 유학파들이 파고들 틈을 내주지 않는다.

국내파와 유학파 사이의 경쟁과 서로에 대한 경원과 배타의 사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선이다. S구호물자회사에서 관리부장직을 맡고 있던 한선은 자신이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미국인들에게 모멸을 당할 때는 고독한 가운데도 다소 희망의 여지가 있었소. 그러나 막상 돌아와 보니 이곳은 더 냉혹하고 약탈하지 않소. 이 고독감은 내게 절망을 가져오는구료. 왜 내가 직장에서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돌림을 받아야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소.
(73)

한선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학파에 대한 경원 때문이기도 하다. 물자부의 차장인 김도수는 구호물자를 불법적으로 활용해서 막대한 치부료를 하는 인물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적 인간형이자 속물주의자이다(물론 그도 처음부터 그런 인물은 아니고 사회 속에서 겪은 여러 배신의 경험에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국내파 출신인 그는 “영어를 잘 하는 족속들”이 “양심과 휴머니즘을 내세우고 자존심 운운”(70) 하는 것을 경멸한다. 기실 한선도 따지고 보면 속물이라는 점에서, 김도수의 그런 경멸에는 아이러니가 있지만, 그의 이 말 속에서 독자들은 국내파로서 도수가 지닌 열등감과 유학파에 대한 경계를 읽을 수 있다.

경쟁과 비교의식은 국내파/유학파 사이에서만 아니라 유학생들 내부에서도 물론 일어난다. 도수와의 갈등과 대결로 결국 직장에서 밀려난 한선은 이후 자리를 잡지 못한다. 한선은 사회적 위치가 없는 자신과 직장이 있는 유학생들을 비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한 선망, 부러움을 드러낸다. 이때 그의 선망은 상대에 대한 모방욕구와 자기향상의 욕구로 연결될 수 없는 감정이다. 왜냐하면 그와 상대의 차이와 간극이 극복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져있기 때문이다. 그의 경우 선망의 감정은 상대의 우월감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이런 상황은 그와 문휘의 다음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비서관 일을 그만두고 무역 업무를 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문휘에게 한선이 일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에서 한선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월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부러움을 일부러 표하고 있다. 다음에 묘사되는 그의 내면의 속생각과 그가 밖으로 내뱉는 말을 보면 그가 어떻게 상대방의 우월감을 이용하여 자신의 실리를 챙기는가가 잘 나타난다.

우린 정말 마음이 너무 가난하다. 돈보다 마음이 더. 때문에 이 친구는 기분과 마음만 서면 돈도 나올 수 있고 어떤 혜택도 푸지게 나올 수 있는 허점이 있지. 그리고 보면 자선이란 얼마나 교활한 우월감이요 자기만족인가... 이런 독선은 최고의 악덕이야. 나는 조금 더 나빠지는 수밖에 없다. 그 허점을 이용하고 들어가는 거다. (169-170)

자넨 참 부러우이. 난 이만한 자리만 있으면 지금 당장은 소원이 없겠네. 자넨 재주도 비상하지만 운도 좋아. 이때껏 살아온 게 그렇지 않은가. (170)

그의 의도대로 이 부러움의 표현은 문휘에게 효력을 발휘하여 그는 일 자리(가방공장 공장장)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약속과 얼마간의 용돈까지 받아낸다. 이 에피소드는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해 자기의 비루함까지도 전시해야 하는 그의 상황의 절박함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월감의 확인만이 삶의 충족감을 주는 문휘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문휘의 아내 희연은 문휘가 “저열한 인간을 주위에 모아 놓고 그 속에서 보강되는 자존과 우월감 등의 일그러진 영웅심리”(174)를 가졌다고 말한다.

열등함/우월함의 이분법적 대립 속에서 관계를 인식하면서 우월감이 없으면 충족감을 느낄 수 없는 심리구조는 동성애적 관계로까지 발전한다는 점에서 놀랍기도 하다. 문휘는 계급적으로나 연령 면에서 자기보다 취약한 인물, 그러면서 자신에게 선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과 동성애적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권력과 우월함에 대한 그의 집착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는 “희연에게 위축된 자아를 찾는 탈출구”(214)로서 동성애를 추구한다. 그에게 동성애 관계는 성적 지향의 문제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몰리고 초조해진 열등한 위치의 보상의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영규라는 젊은이는 고학생으로 사무실에서 심부름하는 처지인데, 처음에 그는 문휘가 대변하는 계급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있었다.

영규의 선망 역시 그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학벌, 계층 면에서 취약한 남자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모멸과 멸시, 냉대를 받는지 알게 해주는 인물인 영규는 성적 지향 때문에 동성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악한 위치 때문에 동성애 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는 동성애관계가 성적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로 제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소설에서 문휘, 한선으로 대변되는 엘리트 남성들의 세계는 우월감/열등감, 승리/패배의 이분법 속에 놓여 있고, 이런 세계에서 선망의 표현은 곧 열등함의 기표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세계에서 시기/선망하는 주체는 열등한 주체이다. 남성은 열등함의 위치를 매우 치욕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우월함을 견딜 수 없어 한다. 상대방의 우월함에 대해 고통을 느끼는 상태, 그리고 자신의 열등함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상태, 이것은 바로 시기심의 감정에 다름 아니다. 소설에서 문휘는 자신의 이런 감정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우월감에 대한 그의 집착은 동성애라는 더 극단적인 길로 나아가게 하고, 자신의 일탈이 노출되었을 때 그런 일탈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자아분열에까지 이른다.

IV.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시기감정

『한국인』의 여성 주인공들 역시 남성주인공들 못지않게 고등교육을 받은 수재들이다. 이들은 미국 유학을 다녀오거나 (서울대와 이화여대로 추정되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했다. 흔히 시기 질투의 관계가 여성인물들 사이에서 많이 묘사되는데 반해 소설에서 주요 여성인물들은 서로 간에 시기 감정을 경험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감과 지지를 나누는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이 소설이 여성들간의 관계보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페미니즘 의식과는 관련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 소설에는 1960년대 여성소설가들의 소설에서 지식인 여성들이 흔히 겪는 내적 갈등인 “개인의식”과 “현모양처의 길 사이의 갈등”(이선미

413)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지식인 여성인 희연, 쉰 한, 헤미의 결혼이 자아실현의 좌절과 연결된 것으로 시사되고는 있지만⁴⁾ 이런 상황이 주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여성인물들 중 시기의 감정의 자장 속에 있는 인물은 희연과 헤미이다. 희연은 자신의 감정과 기질, 가족과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자신의 행동과 선택의 의미, 사회의 흐름 등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분명한 이지적인 여성이다. 그녀는 똑똑하고 현대적이고 강한 개성의 소유자이지만 전통 양반 집안 출신인 친정어머니의 영향으로 절제와 조율과 예의를 안다. 그녀는 제임스(James, Henry)의 『어느 귀부인의 초상』(*The Portrait of A Lady*)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자벨 아처처럼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소위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남성 구혼자를 마다하고 최악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우를 범해 고통을 받는다.

그녀는 문휘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생에 대한 태도가 겸허”하면서도 “남자의 긍지를 잃지 않고 착실하게 살려는 태도”(151)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높이 사서 결혼했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가면서 문휘에 대한 자신의 이런 판단이 치명적인 오류였음을 깨닫게 된다. 그녀가 높이 산 그의 “겸허”는 “자기 불안에서 온 소심과 공포”였다는 것(152), 그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서구적 감각과 사고방식, 합리성을 증오하고 억압한다는 것, 그리고 그에겐 정신세계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절절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 생활의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려는 인물이다. 그녀에게 주목할 점은 그녀에겐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이 없으며, 따라서 그녀 주변 사람에 대해 선망이나 우월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그녀의 주변 사람들과 그녀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족적인 정신세계’를 추구하

4) 희연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장이 없어서 결혼을 선택했고, 쉰 한은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겨지 못한 경제형편 상 안정을 도모할 다른 방편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원한다. 그리고 헤미는 자신이 갈망하던 미국 유학의 길이 가정형편으로 인해 3 년째 무산되자 결혼을 선택한다.

며⁵⁾, 각 개인은 타인과 절대적인 공감을 나눌 수 없는 고독하고 개별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절대적인 공감을 요구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가부장적 사고를 내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편에게 종속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녀의 행복은 남편, 아들의 존재에 달려 있지 않고,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그녀의 가치, 그녀가 추구하는 정신세계에 달려 있다. 그녀는 그녀가 놓인 가족구조, 사회구조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와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

그녀는 시기하는 주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를 받는 주체이다. 그녀는 전근대적인 가족 구조 속에서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시기의 대상이다. 시아버님과과의 관계 속에서 충족감이 없는 시어머니는 오로지 아들, 그것도 둘째 아들인 문휘에 대해 과도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희연의 시어머니는 문휘를 사이에 두고 며느리인 희연과 애정경쟁을 한다. 그녀는 끊임없이 며느리를 모함함으로써 문휘와 며느리의 사이를 떼어놓으려 한다. 희연을 시기하는 또 다른 인물들은 동서들이다. 동서들은 희연이 자신들에게는 없는 아들을 낳아 시부모의 인정을 얻을 때, 그리고 자신들은 누리지 못하는 독립적 주택을 희연이 장만할 때, 희연을 시기하여 시부모님과 희연을 갈라놓으려 한다.

희연은 이런 식의 관계구조가 전근대적인 한국적인 가족 구조에서 오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동서들을 특별히 미워하지 않는다. 그녀의 이런 인식은 미국식 개인주의에 대한 그녀의 평가에서 드러난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미국의 문화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데, 전근대적인 한국의 가족 구조를 경험하고 나서는 부부중심의 삶, 개인적인 삶을 허용하는 미국식 개인주의를 긍정적

5) 희연이 추구하는 정신세계를 50, 60년대에 매우 강조되었던 ‘교양’개념으로 설명하는 평가들이 있다. 김우영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녀에 의하면 작가는 희연을 불문학 전공자로 설정하여 아메리카니즘의 물질주의와 속물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희연은 “Bildung으로 대표되는 유럽 문화의 교양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희연에게는 “한국의 전통적 상류층인 양반의 정신세계의 영향”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김우영은 지적한다. 김우영, 『여성 지식인의 외부자 되기와 그 임계: 손장순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연구』 37호, 74-5쪽.

으로 평가한다.

헤미의 삶은 그야말로 시기 질투 선망으로 점철된 삶이다. 헤미에게는 희연같은 주체의식이 없다. 그녀는 “화초처럼 아버지의 이상에 따라 키워졌고”, “그 울타리를 뛰어나가려는 생각 없이 그 안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리며”(32) 살아왔다고 말해진다. 헤미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늘 타인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녀는 희연처럼 자신의 고유의 정신세계를 추구하지 않고 외부의 시선,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는 인물이다.

그녀의 첫 비교상대이자 경쟁상대는 언니 헤림이다. 그녀는 언니 헤림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 질투하면서 열등감을 느꼈다. 언니에 대한 열등감은 관희와의 결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녀는 언니의 옛 애인이었던 관희와 결혼할 때, 언니에 대해 묘한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듯 그녀는 매사를 비교의 관점, 경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헤미의 비교와 경쟁이 그녀 자신의 욕망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언니)의 욕망을 자기의 것으로 하여 관희와 결혼했고, 당대에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미국/미국유학을 자신의 것으로 선망하여 그토록 미국 유학을 꿈꾼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이다. 그래서 그녀는 기실 자신의 욕망의 대상을 정확히 모른다. 남편인 관희에 대해서도, 선망의 대상인 미국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남편을 잘 모르는 채 일방적인 이해와 애정만을 받기를 원하고, 미국을 잘 모르는 채 맹목적으로 선망하기만 한다.

결혼 생활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타자들의 차이에 주목하고, 이 차이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열등함을 느낀다. 남편의 좋은 가문/제주도 섬 출신의 보잘 것 없는 자신의 배경, 시댁 식구들의 바위처럼 강한 개성/꽃 같이 바람에 나부끼는 연약한 자신의 개성, 시댁 식구와 남편의 관계/자신과 남편의 관계, 시집의 동양식 가옥/ 침대를 갖춘 양옥 가옥, 확대가족/부부중심의 독립가정 등의 비교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느낀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 관계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선망한다. 결핍, 열등함에 사로잡혀있는 그녀는 복잡하고 폐쇄적인 마음의 결을 가지게 되고 이는 타인

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 바탕을 둔 관계를 저해한다.

그녀의 미국선망은 미국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유학경험자 쉰 한은 말한다. 실제 작품에 형상화된 유학생들의 인종차별경험, 희연을 통해 제시되는 미국 정책과 문화의 문제점 등을 통해 볼 때 미국은 그리 이상적인 곳이 아니다. 그녀는 영문과 전공생으로서 어설피 지식만으로 미국을 이상화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그녀의 열등한 위치를 보상해 줄 기회, 탈출구로 그녀에게 여겨지나, 미국에 대한 선망이 결국 미국인의 성적 노리개로 이용만 당하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한다. 미국인의 동거녀라는 위치는 그녀에게 수치의 위치이므로 그녀는 자기가 속한 세계와 완전히 단절하고 급기야 자살을 선택한다.

한편 미국유학을 중단하고 신경쇠약에 걸려 한국에 온 쉰 한이야말로 헤미보다 훨씬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다. 헤미는 그나마 의사인 아버지의 지원을 받고 서울에 와서 공부할 수 있었지만 쉰 한은 권세가의 2호 첩인 언니의 어려운 도움을 받고 미국 유학을 한 처지였다. 그런 그녀가 한국에 왔을 때 그녀는 원하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유학생 남성에게나 국내파 엘리트 남성에게나 결혼할 좋은 상대로 여겨지지 않는다. 고등학교 때 명석하여 ‘퀴리 부인’처럼 되겠다는 꿈을 안고 유학을 갔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은 그녀였지만, 결혼만이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그런데 쉰 한에게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없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시각이 있다. 그리고 자신보다 상황이 좋은 희연 같은 친구에 대해서도 시기가 아니라 공감과 지지의 관계를 유지한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나누며 커다란 시련을 겪으면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자기감정에 거리를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아 새로운 길을 추구할 여지를 제공받는다.

V. 나가며

이어령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것이 한국이다』의 후기에서, 자신이

그 책에서 한 일은 ‘한국인의 자화상’을 그려보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자화상은 추하고 이지러진 모습, 비참하고 흉측한 상처까지도 내보여야 그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래서 그는 “악운과 가난과 횡포와 그 많은 불의의 재난들”(15)을 겪어 오면서 “가축 같은 몸짓으로 쫓겨 가는” 모습을 우리 한국인들의 비밀의 (참)모습이라 제시했다.

흉측한 상처와의 대면을 통해서만이 상처의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은 작가 손장순의 기본 생각이기도 하다.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경험이 매우 강렬하게 녹아있는 이 소설에서 작가는 일그러진 한국 지성인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런 일그러진 모습이 60년대 초의 한국 사회의 상황 속에서 배태된 것임을 소설 곳곳에서 암시한다. 60년대 초의 불안정하고 불균형하며 부조리한 한국 사회는 “애매모호한 혼란과 불확실성과 착란”(171) 속에 있는 남성지식인 인물들을 낳았다고 작가는 제시한다.

필자는 작가가 제시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혼란과 불확실성 속의 남성들을 지배하는 감정 중 하나가 시기 감정이라고 보았다. 우월함/열등함, 승자/패자의 이분법적 비교 속에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며, 자신의 열등함과 상대의 우월함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감정, 일탈을 통해서라도 우월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병적인 마음상태는 시기감정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시기 감정은 임신출세의 욕망의 좌절의 결과를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점에서 유해하고 파괴적이다.

그리고 여성인물인 헤미의 삶은 시기 감정에 속하는 선망의 감정이 타자지향적인 사고, 타자에 대한 이상화, 내면적 결핍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흔히 사회적으로 무해하다고 이해되는 선망의 감정도 개인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또 주관 이 뚜렷하고 자기만의 정신세계를 중시하며 외부의 시선, 외부의 욕망의 영향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희연은 비교의식과 시기/선망의 감정에서 자유롭다는 점, 소설 속의 대부분의 엘리트 인물들의 삶이 파괴되는 데 반해 희연은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을 부여받는다라는 점에서 볼 때, 내적인 성찰,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가 가지는 힘이 새삼스럽게 더욱 부각된다.

■ 참고문헌

- 강준만, 『한국인코드』. 인물과 사상사, 2006.
- 권보드래·천정환 지음, 『1960년을 묻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여성』. 천년의 상상, 2012.
- 김양선, 「‘한국여류문학상’이라는 제도와 1960년대 여성문학의 형성」. 『여성문학연구』 31호. 여성문학학회, 2015.
- 김우영, 「여성 지식인의 외부자 되기와 그 임계: 손장순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7호. 여성문학학회, 2016.
- 나카노 노부코·사와다 마사토 지음, 노경아 옮김, 『감정본색: 뇌과학자와 심리학자가 이야기 하는 분노와 원한, 시기와 질투』. 플루토, 2015.
- 박형신·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공포 감정의 거시사회학』. 한길사, 2015.
- 방민호, 「한국문학의 1960, 1970년대와 손장순 문학의 의미」. 『아프레게르와 손장순 문학: 손장순 문학연구』. 방민호 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소영현, 「전쟁 경험의 역사화, 한국 사회의 속물화」. 『한국학연구』 32권, 2014.
- 손장순, 『한국인』. 민성사. 1994.
- 안서현, 「여성주체의 세 가지 실존적 모험 - 손장순 장편소설의 변화양상」. 『아프레게르와 손장순 문학: 손장순 문학연구』. 방민호 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전혜자, 「현대소설의 도시생태적 독법에 대한 연구- 손장순의 <한국인>을 중심으로」. 『현대 소설연구』 12호. 2000.
- 조(한)혜정,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한국의 여성과 남성 2』. 또한나의 문화, 1998
- 차운아, 「부러움: 한국의 “무해한 선망”」. 『한국심리학회지』 23권 2호, 2009.
-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0.

- Belk, Russell, W.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3(Dec., 1985).
- Matt, Susan, "Children's Envy and the Emergence of the Modern Consumer Ethic, 1890-1930." *Journal of Social History* 36.2 (2002).
- Ngai, Sianne, *Ugly Feelings*. Cambridge: Harvard UP, 2005.

❖ ABSTRACT

The Frustration of Desire and Envy: The Emotion
of the Elite in the 1960's Korean Society
- Son Jangsoon's *The Koreans*

Kim, Youngmee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emotion of the elite characters in Son Jangsoon's early novel, *The Koreans*. In this novel, most characters are found to have an envy feeling, except for two female characters, Heeyeon and Sue Han. Although the writer does not consciously explore the envy feeling here, she excellently represents the harmful effects of the envy feeling. In this novel, the envy feeling is related to the desire for success and its frustration. In 1960's, people had high expectation of improvement in their individual lives. The elite groups were more likely to have a successful life with good education. But in this novel, these elite people suffer from frustration of their desire and experience of the envy feeling. The impressive point in this novel is that not only females but also males are shown to have the envy feeling. Envious people have the tendency to compare themselves with people around them, to feel shame in an inferior position and to aspire for superiority. In these envious characters, the feeling of envy reveals their lack, their inferiority and it never provides them with the way to escape from their suffering situation. The writer suggests that the envy feeling can be overcome by pursuing other valuable things and focussing not on other people's desire but on their own desire.

Key Words : Son Jangsoon, *The Koreans*, envy, elite, inferiority, lack

■ 논문접수일 : 2017. 02. 10

■ 심사완료일 : 2017. 03. 01

■ 게재확정일 : 2017. 03. 03